

포스트휴먼 시대의 텔레비전드라마 - 〈너도 인간이니?〉를 중심으로

이다운*

1. 들어가기
2. '기계-인간'으로 규명되는 인간의 존재성
3. '육망하는 기계'와 '황당하는 주체'의 탄생
4. 나가기

국문요약

포스트휴먼(post-human)이란 인간(human) 이후(post)의 인간, 다시 말해 과학기술의 발달로 인해 과거 및 현재의 인간과는 전혀 새로운 삶을 살게 될 새로운 인간을 총칭하는 말이다. 인간은 죽음을 향하는 존재라는 하이데거의 명제가 더 이상 통용되지 않을 포스트휴먼 시대는 호모사피엔스가 축적해 온 사유와 정체성이 폐기될 수 있을 만큼의 대변혁을 예고한다. 이러한 가운데 한국 사회에서는 '알파고 쇼크' 이후 인공지능과 4차산업에 관한 관심이 더욱 증대되었고, 텔레비전드라마에도 포스트휴먼적 상상력이 본격화되기 시작한다.

그중에서도 〈너도 인간이니?〉는 포스트휴먼적 상상력을 기반으로 인공지능 휴머노이드 로봇이 한국 사회에 출현한다면 어떠한 상황이 발생할 것인가를 구체적인 사건을 통해 보여준다. 〈너도 인간이니?〉는 인간다움의 속성을 보존하며 진짜 인간이 되기 위해 노력하는 인공지능 로

* 충남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강사.

봇과 인간다움의 속성을 부인하며 타락해 버린 인간들을 대조적으로 재현함으로써 ‘인간다움’에 관한 질문을 던진다. 또한 <너도 인간이니?>는 욕망과 자발적 의지를 확보한 ‘기계-인간’을 어떻게 대우해야 하며 그들과 공존하는 방법은 무엇인지를 탐색해 나간다.

결론적으로 <너도 인간이니?>는 인간의 형상을 하고 인간의 마음까지 학습하는 ‘기계-인간’이 출현한다면 그들을 기계로만 치부할 수는 없으며, 그들에게 인간과 유사하거나 동등한 지위를 부여해야 함을 피력한다. 더불어 ‘기계-인간’과 진실한 사랑을 나누는 인간을 통해 인간과 비인간, 유기체와 제조된 존재 사이의 경계를 허물고 새로운 타자와의 연대를 권유하는 포스트휴머니즘적 주체를 보여준다. 즉 <너도 인간이니?>는 인간만이 주체가 될 수 있다는 견고한 관념을 파기하는 횡단적 주체성을 제시함으로써 포스트휴먼시대를 위한 사유의 방향성을 지시한다.

(주제어: 포스트휴먼, 포스트휴머니즘, 인공지능, 로봇, SF, 인간성, 주체성)

1. 들어가기

포스트휴먼(post-human)이란 인간(human) 이후(post)의 인간, 다시 말해 과학기술의 발달로 인해 과거 및 현재의 인간과는 전혀 새로운 삶을 살게 될 새로운 인간을 총칭하는 말이다. 인간이 이미 포스트휴먼 시대에 진입했다고 보는 캐서린 헤일스는 신체를 가진 존재와 컴퓨터 시뮬레이션, 사이버네틱스 메커니즘과 생물학적 유기체, 로봇의 목적론과 인간의 목표 사이에 본질적인 차이나 절대적인 경계가 존재하지 않는¹⁾ 상태를

1) 캐서린 헤일스, 『우리는 어떻게 포스트휴먼이 되었는가』, 허진 옮김, 열린책들, 2013.

포스트휴먼으로 규정한다. 포스트휴먼은 육체적·지적·정신적 결핍과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인류의 숙원이 고도로 발전한 과학기술의 도움을 받아 완성된 결과라 할 수 있다. 트랜스휴먼, 인공지능, 사이보그 등의 발달로 포스트휴먼 시대가 심화되면 인류는 육체적·정신적 한계뿐만 아니라 죽음이라는 필연적 사건으로부터도 자유롭게 될 것이다. 따라서 포스트휴먼은 인간 욕망과 인간 진화의 종착지²⁾라고도 할 수 있다.

인간은 죽음을 향하는 존재라는 하이데거의 명제가 더 이상 통용되지 않을 포스트휴먼 시대는 호모사피엔스가 축적해 온 사유와 정체성이 폐기될 수 있을 만큼의 대변혁을 예고한다. 예를 들어 의식을 업로드의 형태로 전이하게 된다면 인간은 무소부재한 영원불멸의 존재가 될 수 있다. 도미니크 바벵은 포스트데스(post-death), 포스트보디(post-body), 포스트에고(post-ego), 포스트릴레이션(post-relation), 포스트리얼리티(post-reality) 등 포스트휴먼이 겪어야 할 다섯 가지 변화에 관해 이야기한다. 포스트휴먼은 육체에서부터 정체성, 타인과의 관계나 현실 인식 그리고 죽음까지도 현재와는 다른 방식으로 대응하게 될 것이다.³⁾ 이러한 포스트휴먼을 향한 과학적 욕망은 인간을 서열화하는 우생학적 접근으로서 인간 본원의

24쪽 참고.

2) 닉 보스트롬은 인간이 Human, Transhuman, Post-human으로 진화할 것이라고 본다. 그는 포스트휴먼을 ‘현존하는 인간 종을 극단적으로 초월하는 완전히 재설계된 존재’라고 말한다. 이러한 포스트휴머니즘에 도달하는 과정 혹은 방법으로서 트랜스휴먼은 ‘기술 개발을 통해 노화를 방지하고 인간의 지적, 육체적, 심리적 능력이 향상되어 질병이나 고통 등이 제거된 상태를 말한다.’(Nick Bostrom, “The Transhumanist FAQ - A General introduction”, 2003, <https://nickbostrom.com/views/transhumanist.pdf>, 4-6쪽 참고.)

3) 도미니크 바벵은 이러한 변화들이 일련의 재앙을 야기할 수 있음을 경고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바벵은 포스트데스(post-death)로 인해 환경적·사회적 재앙이 도래할 것이며 중국에는 인간이 스스로의 영토에서 추방당하게 될 것이라고 보았다.(도미니크 바벵, 『포스트휴먼과의 만남』, 양영란 옮김, 궁리, 2007, 38-39쪽 참고.)

조건을 파괴할 것이라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불멸을 향한 인간의 욕망을 원료로 하여 강화되고 있다. 따라서 포스트휴먼의 실현을 향한 수많은 비판 속에서도 ‘인간 이후의 인간’ 시대는 필연적으로 도래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가운데 우리는 ‘인간 이후의 인간’으로서 인공지능이라는 경이롭고도 두려운 타자와 만나게 된다. ‘인간의 생물학적 자질의 결점을 보완하고 능력을 확장하려는 프로메테우스적 기획’⁴⁾에서 탄생된 인공지능은 인간이 창조라는 신의 권한에까지 도달했음을 보여주는 증거가 될 것이다. 특히 인공지능 중에서도 ‘인간 처럼’(AGI, Artificial General Intelligence)이 아니라 인간보다의 수준을 가진 인공지능(ASI, Artificial Super Intelligence)은 레이 커즈와일이 특이점(singularity)으로 지명한 시기인 2045년이 되면 등장할 것으로 예측된다.⁵⁾ 이러한 상황에서 자신보다 우월한 지능을 가진 존재를 만나본 적 없던 인간은 초월적 능력을 가진 만들어진 존재와 어떻게 공존해야 하는가를 사유하고 대비해야 할 것이다.

주지하다시피 한국 사회에서는 ‘알파고 쇼크(2016)’ 이후 인공지능에 관한 관심이 크게 증대되었다. 알파고는 과학기술에 대한 경이로움과 인간이 만들어진 존재에 의해 패배자로 전락할 수도 있다는 공포를 동시에 제공하였다. 특이점이 멀지 않았음을 명징하게 보여준 알파고 사건 이후 한국 사회에서 4차산업에 관한 관심이 더욱 증대되었다. 그러한 영향에서인지 2016년 이후 한국의 텔레비전드라마 그중에서도 지상파

4) 라파엘 카푸로·미카엘 나젠보르그, 『로봇윤리: 로봇의 윤리적 문제들』, 변순용·송선영 옮김, 어문학사, 2013, 78쪽.

5) 레이 커즈와일은 ‘미래의 기술 변화 속도가 매우 빨라지고 그 영향이 매우 깊어서 인간의 생활이 되돌릴 수 없도록 변화되는 시기’를 특이점(singularity)이라고 말한다. 그는 이 시기가 도래하면 인간이 삶에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 사용하는 온갖 개념에 변화가 일어날 것이며, 인간보다 뛰어난 수준을 가진 인공지능이 등장하게 될 것이라고 말한다.(레이 커즈와일, 『특이점이 온다』, 김명남·장시형 옮김, 김영사, 2007, 23쪽 참고.)

방송이라는 보수적인 공간에까지 인공지능이 극의 주인공으로 출연하기 시작했다. 2017년과 2018년에는 인공지능 휴머노이드 로봇이 등장하는 세 편의 텔레비전드라마 <보그맘>, <로봇이 아니야>, <너도 인간이니?>가 연이어 방송되었다.⁶⁾ 텔레비전드라마가 대중의 관심사를 반영하는 대중예술이라는 것을 고려할 때 이들 드라마의 연속된 출현은 포스트휴먼에 관한 대중적 관심이 일정 부분 증가했다는 것을 방증한다고 볼 수 있다.⁷⁾

그중에서도 <너도 인간이니?>는 인공지능 휴머노이드 로봇을 통해 포스트휴먼이 인간 사회에 출현한다면 어떠한 상황이 발생할 것인가를 구체적인 사건을 통해 보여주는 작품이다. <너도 인간이니?>는 인물들의 갈등과 변화를 통해 앞으로 인공지능 로봇이 등장한다면 인간은 그들을 어떠한 존재로 대해야 하는지도 함께 고민하게 한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포스트휴먼 시대에 적합한 인간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탐색해 나간

6) <보그맘>(MBC)은 2017년 9월-12월에 방송된 작품으로 모성이 주입된 인공지능 휴머노이드 로봇이 육아와 가사 일을 맡게 되면서 벌어지는 사건을 다룬다. <로봇이 아니야>(MBC)는 2017년 12월-2018년 1월에 방송된 작품으로 인간 알레르기라는 질환을 가진 남성인물이 여성형의 인공지능 로봇과 함께 살게 되면서 벌어지는 사건을 다룬다. <너도 인간이니?>(KBS2)는 2018년 6월-8월에 방송된 작품으로 인공지능 로봇이 불의의 사고를 당한 실제 인간을 대리하면서 발생하는 사건을 다룬다.

7) 실제로 <너도 인간이니?>의 조정주 작가는 2008년에 인공지능 로봇이 등장하는 텔레비전드라마를 기획하였지만 그것이 실제 제작으로 이어지지 않았다. 결국 <너도 인간이니?>가 2018년에 방송될 수 있었던 것은 '인간에 가까운 로봇이 나올 수 있다는 상상이 가능한 시대라는 점에서 개연성이 무리가 없다(이진준 CP)는 판단이 가능했기 때문이다. 또한 이와 같은 판단은 알파고 사건과 4차산업으로 인공지능 로봇에 관한 일상적 관심이 증대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로봇연기'라 놀리지 말아요, 요즘 대세입니다.], 『한겨레』, 2017.10.31. http://www.hani.co.kr/arti/culture/_general/816887.html#csidxabffddb045b1f5cadb28b339871fe6d, 참고.) 이러한 가운데 인공지능 로봇이 등장하는 텔레비전드라마 <절대 그이>가 현재 사전제작으로 촬영 중이며, 인공지능 로봇의 이야기를 다룬 웹툰 <부적격 그녀>가 텔레비전드라마 제작사에 판권이 팔린 상태다.

다. 무엇보다 〈너도 인간이니?〉는 제목이 표시하듯 창조된 기계라는 비인간을 통해 인간이란 무엇이며 어떠한 해야 하는가를 비교적 심도 있게 고찰한다. 이러한 점에서 〈너도 인간이니?〉는 실제의 삶에서 인공지능이 어떻게 존재하게 될 것이며 인간은 그들과 어떠한 관계를 맺게 될 것인지 그리고 이를 통해 우리는 어떠한 의식을 확보해야 하는지를 서사적으로 고민하게 하는 예지적 텍스트라 할 수 있다.

이미 포스트휴먼 시대에 진입한 시점에서 우리는 ‘인간-기계’와 ‘기계-인간’이 인간과 세계의 존재 양상을 변혁하기 전에 인간과 인간 이후의 인간에 관해 끊임없이 탐색해야 한다. 이러한 사유는 미래를 향한 상상력을 통해서도 가능하다. 〈멋진 신세계〉가 100년 후의 미래를 그럴듯하게 재현해냈듯 상상력을 기반으로 하는 허구 텍스트는 미래를 예측하고 예지한다. 또한 허구 텍스트는 구체적인 상황을 통해 실제의 감정을 제공하기 때문에 감상자에게 ‘만약 저러한 일이 실제로 발생한다면 나는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를 생각하게 한다. 이러한 점에서 미래를 재현한 이야기는 인간에게 미래를 체험하고 준비하게 하는 일종의 시뮬레이터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인공지능 휴머노이드 로봇이 대한민국에 최초로 출현했다는 가정에서 시작하는 〈너도 인간이니?〉를 탐색하려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본고는 이러한 전제를 토대로 하여 포스트휴먼적 상상력을 기반으로 ‘인간 이후의 인간’이 보통의 인간들로 구성된 세계에 진입하였을 때 발생하게 될 정황을 그린 〈너도 인간이니?〉를 분석해 보고자 한다. 〈너도 인간이니?〉는 대한민국 제1호 인공지능 휴머노이드 로봇이 인간의 삶을 배우고 인간 세계에 적응해 가는 과정을 극적인 서사 안에서 보여준다. 또한 ‘기계-인간’과 관계하는 다양한 인물들을 통해 인간적이라고 하는 것의 실체와 모순됨을 고발하기도 한다. 본고는 이러한 〈너도 인간이

니?)를 통해 인공지능 휴머노이드 로봇의 존재성과 그와 관계하는 인간의 존재성을 함께 고찰해 볼 것이다. 그리고 <너도 인간이니?>가 제시하는 포스트휴먼 시대의 인간과 '기계-인간'의 정체성을 탐색해 봄으로써, 포스트휴머니즘의 방향성에 관해서도 함께 논의할 것이다.

2. '기계-인간'으로 규명되는 인간의 존재성

현재보다 더 나아지고 싶다는 진보에의 욕망은 인류의 역사를 변혁하는 원료가 되어왔다. 개인뿐만 아니라 인류에게 주어진 보편적 한계를 초월하려는 욕망을 지치지 않고 점화해 온 인간은 인간을 개조하고 창조하는 일 때까지 욕망의 범위를 확장해 왔다. 호모사피엔스가 자연선택의 법칙을 위반하고 지적설계의 방식으로 스스로의 한계를 초월하고 있다는 유발 하라리의 말처럼⁸⁾ 인간은 지능을 토대로 하여 초월자의 자리에까지 나아가고자 했다. 인류가 '동물 상태'에서 벗어나고자 자신을 변용하는 데 이용한 첫 번째 도구가 언어였다면,⁹⁾ 과학기술은 인류가 '인간 상태'를 벗어나도록 할 만한 도구를 만들고 있다. 결국 호모사피엔스의 상상적 욕망을 실현해준 것은 과학기술이었다. 이렇듯 과학기술의 발달로 인간 종의 본원적 한계를 극복해 내면서 '영혼 없는 객체'였던 기계의 지위마저 변하게 된다. 이제 기계는 <아이언맨>의 사이보그 히어로 토니 스타크처럼 인간을 향상시키고 세상을 구원해줄 기대를 품게 하는 신흥 종교의 지위에 올라서 있다.

인간의 욕망과 과학기술의 결합으로 창조된 기계 중 '인공지능'은 인

8) 유발 하라리, 『사피엔스』, 조현욱 옮김, 김영사, 2016, 561쪽 참고.

9) 루이스 멍퍼드, 『기계의 신화 I』, 유명기 옮김, 아카넷, 2013, 127쪽 참고.

간 욕망의 새로운 투영 대상으로서 완전한 창조를 기다리고 있다. 전술한 바와 같이 〈너도 인간이니?〉는 이러한 인공지능이 휴머노이드 로봇의 형태로 완전하게 창조되어 인간 세상 그중에서도 한국 사회에 최초로 출현한 시점에서 이야기를 시작한다. ‘남신3’라 명명되는 인공지능 로봇은 아들과 헤어져 살게 된 천재 로봇 공학자 오로라 박사가 아들에 대한 그리움을 해소하기 위해 창조한 ‘기계-인간’이다. 기업 회장으로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는 남건호는 아들이 죽은 후 손자인 남신을 후계자로 삼기 위해 며느리 오로라에게서 남신을 탈취한다. 결국 체코에서 홀로 살게 된 오로라는 아들에 대한 그리움을 견디지 못하고 그를 대체할 인공지능 로봇을 만들게 된다. 즉 인공지능 로봇 남신3는 실제 인간을 대리하기 위해 만들어진 모방품으로 모성애의 충족을 위해 설계된 피조물이었다.

오로라는 실제 아들인 남신의 성장 과정을 토대로 남신1과 남신2를 창조했으며, 그를 기반으로 성인이 된 인간 남신을 완벽히 모방한 남신3를 창조한다. 원본으로서 인간 남신을 그대로 모방하고자 했던 창조자의 목표는 매우 성공적으로 실현된다. 남신3는 언캐니 밸리(uncanny valley)마저 극복한 상태로¹⁰⁾ 외형뿐만 아니라 목소리나 피부 촉감 등도 인간과 구별하기 힘들 정도로 완벽하다. 기계몸이라는 것이 물리적으로 증명되기 전까지는 그가 로봇이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는 수준이기 때문이다. 또한 남신3는 인공지능의 조건인 인간적 사고(Thinking humanly), 합리적

10) 언캐니 밸리(uncanny valley)란 모리 마사히로가 주창한 이론이다. 그는 로봇 등의 인공물이 인간과 닮아갈수록 호감도가 높아지지만 인간과의 유사성이 특정 수준에 이르게 되면 오히려 불쾌함을 제공한다고 보았다. 그러나 만약 인공물의 인간 유사성이 계속 증가하여 언캐니 밸리 수준을 지나게 되면 다시 말해 인간과 인공물을 구별할 수 없게 되면 불쾌감도 해소된다고 말한다. 〈너도 인간이니?〉는 인공지능 로봇을 CG로 재현하지 않고 실제 배우에게 연기하도록 함으로써 시청자의 언캐니 밸리를 미연에 방지한다.

사고(Thinking rationally), 인간적 행위(Acting humanly), 합리적 행위(Acting rationally)를 모두 충족하는¹¹⁾ 완벽하게 의인화된 로봇이다. 그러나 남신3는 ‘인간 같은’이라는 조건을 뛰어넘어 ‘인간보다 천 배는 강력한 근력, 인간이 절대 따라올 수 없는 지적 능력, 모든 걸 탐색할 수 있는 네트워크(13회)’를 확보한 ASI라 할 수 있다.¹²⁾

〈너도 인간이니?〉속 남신3의 능력은 인간처럼 행동하고 인간보다 월등한 지능을 가진 것에만 한정되지 않는다. 남신3의 창조자이자 어머니라 할 수 있는 오로라는 남신3에게 일련의 원칙을 주입함으로써 남신3를 정의로운 존재로 설계한다. 오로라가 남신3에게 주입한 원칙은 바로 ‘인간 세상의 규율을 지키는 것’과 ‘위험에 처한 인간을 돕는 것’ 그리고 어떠한 경우에도 ‘인간을 해치지 않는 것’이다. 남신3에게 주입한 일련의 원칙은 로봇은 인간을 해쳐서도 안 되며, 인간이 해를 입도록 방치해서도 안 된다는 아시모프가 제시한 ‘로봇 3원칙’¹³⁾에 부응한다. 이러한 이유로 남신3는 자신과 자신에게 소중한 인간을 없애려 한 인간(서종길)마저도 해치지 않는다. 따라서 남신3는 단순히 인간을 모방하는 존재가 아니라 인간을 돕고 인간의 규율에 순응하여 인간과 세계의 안위를 보존하는 데 기여하는 윤리적 인공지능 로봇으로 창조되었다.

11) 스투어트 러셀과 피터 노빅은 이 네 개의 조건을 통해 인공지능을 정의한다.(스튜어트 러셀·피터 노빅, 『인공지능: 현대적 접근방식』, 류광 옮김, 제이펍, 2016, 2-6쪽 참고)

12) 이 밖에도 인공지능 로봇 남신3는 다양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 예를 들어 손에 거짓말 탐지기가 있어 타인의 손을 잡음으로써 그가 하는 말의 진위를 판단할 수 있고, IoT를 제어하거나 다른 로봇들과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도 있다. 또한 물속에서 장시간 버티거나 시스템을 해킹하고 조작하는 능력도 가지고 있다.

13) Robotics라는 말을 만든 아이작 아시모프는 단편소설 『Runaround』(1942)에서 ‘로봇 3원칙’을 제시했다. ①로봇은 인간에게 해를 입혀서는 안 되며 위험에 처한 인간을 방관해서는 안 된다. ②원칙 1에 위배되지 않는 한 로봇은 인간의 명령에 복종해야 한다. ③원칙 1과 2에 위배되지 않는 한 로봇은 자신을 보호해야 한다. 이러한 아시모프의 로봇 3원칙은 EU에서 결의한 로봇시민법(2017)의 토대가 되었다.

남신3는 어떠한 경우라도 인간을 해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위협에 처한 인간은 대상이 누구이든 자신의 안전 여부와도 상관없이 무조건 돕는다. 남신3는 자신이 완전히 파괴되어 소멸될 것이라는 사실을 인지하는 상황에서도 인간을 도와야 한다는 원칙을 지킨다. 오로라는 남신3가 인간을 위협 상황으로부터 구출해낼 수 있도록 순간적으로 모든 기억을 차단하고 오직 구제에만 에너지를 집중하게 만드는 ‘재난모드’까지 설계해 놓았다. 이 설계에 의해 남신3는 화재로 인해 건물이 붕괴되는 상황에서도 공포를 느끼지 않고 구조 기체가 되어 인간을 구출해 내는 영웅적 로봇으로 변신하기도 한다. 남신3가 자신을 보존하는 것보다 인간을 지키는 원칙을 수행할 수 있는 것은 그가 육체와 그에서 기인하는 감정이 부재한 기계이기 때문이다. 욕구나 감정과 같은 변수가 부재한 남신3는 도덕적·윤리적·법적 규율에도 철저하게 순응한다. 상황이나 감정에 따라 원칙을 위반하는 인간과 달리 규율에 순응하는 것이 설정값으로 주어졌기 때문이다.

그런데 인간처럼 살기 위해 노력하고 인간 세계의 원칙을 엄수하려는 인공지능 로봇 남신3와 달리 <너도 인간이니?>에 등장하는 실제 인간들은 원칙을 위반하고 이기적이며 일관성 역시 없다. 인간들은 유동적인 감정 때문에 언제나 변수를 동반한다. 무엇보다 인간은 욕망을 충족하고자 부정한 일도 서슴없이 행한다. 실제로 남신3가 재벌 후계자인 인간 남신을 대항하기 위해 한국에 와서 만나게 되는 인간들은 권력, 돈, 명예, 가족 등을 지키고자 수시로 거짓말을 하고 서로를 배신하며 심지어 살인까지도 불사한다. 그중에서도 서종길과 남건호 그리고 인간 남신은 인간성이라는 것이 탈각된 ‘욕망-기계’처럼 행동한다. 밑바닥에서 대기업 이사 자리까지 올라온 서종길은 현재의 권력을 유지하고 동시에 더 많은 권력을 확보하기 위해 후계자인 친구와 그의 부인을 죽이고, 친구

의 아들(인간 남신)까지 살해하려 한다. 기업 회장인 남건호는 기업을 사수하기 위해 인공지능 로봇 남신3가 친손자인 인간 남신을 대체하게 하려는 비정상적 욕망을 품기도 한다. 남신3의 원본인 인간 남신 역시 질투와 분노로 인해 친할아버지를 살해하려는 패륜을 저지르고 남신3를 파괴하려는 폭력성을 보여준다.

피식 웃는 종길, 보란 듯 제 휴대폰 책상 위에 올려놓는다.

재생되지 않은 동영상 속 주인공은 남신이다

몇 대 맞고 입에 재갈 물리고 손발이 묶여 있는.

놀란 영훈, 얼른 집어 들고 동영상 플레이하면,

벗어나려고 고함지르고 발악하는 남신 보인다.

경악하는 영훈, 휴대폰 뺏개치고 종길의 목살 부여잡는다

영훈: 신이 어딴어? 어딴냐구!

종길: (태연한) 회장님 지분 넘겨, 신이 죽이기 싫으면.

영훈: 오 박사님이면 됐잖아. 신이까지한테 이럴 필요 없잖아!

당신, 사람도 아냐 짐승이라구!

종길: 나 짐승 아냐. 악마지.

<너도 인간이니?> 36회 S#35 中

이처럼 인공지능 로봇 남신3가 만나게 된 인간 중에는 인간의 범주에 포함될 수 없는, '짐승도 아닌 악마(36회)'가 많다. 그런데 <너도 인간이니?>에서는 인간을 욕망의 도구로 수단화하는 비인간적인 인물뿐 아니라 선을 지향하는 인물들까지도 타인을 이용하고 기만하는 불완전한 존재로 형상화한다. 남신3와 친구 이상의 관계로 발전하는 강소봉이지만 그녀 역시 '어차피 망한 인생 돈이나 별자(5회)'는 생각으로 서종길의 스파이로 활동하게 된다. 남신3의 창조자이자 어머니인 오로라는 인간 아들을 보호하기 위해 아들로 간주해 온 남신3의 몸에 킬스위치를 삽입하

여 그를 한낱 기계로 전락하게 만든다. 남신을 창조하게 만든 모성애가 오히려 비인간적인 행동을 추동하는 부정한 동기로 작용한 것이다. 이처럼 〈너도 인간이니?〉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감정과 욕망에 휘둘리는 불완전한 존재로, 원칙을 지키고 인간을 도우며 정의를 수호하고자 하는 ‘기계-인간’과 대조적으로 그려진다.

〈너도 인간이니?〉는 비록 설정값으로 주어졌지만 인간다움의 속성을 보존하며 진짜 인간이 되기 위해 노력하는 인공지능 로봇과 인간다움의 속성을 부인하며 타락해 버린 인간들을 대조적으로 재현함으로써 ‘인간다움’에 관한 질문을 던진다. 인공지능 휴머노이드 로봇은 인간을 원본으로 참조하여 만들어진 인간의 모방품이다. 그러나 〈너도 인간이니?〉에서 보여준 것처럼 실제 인간은 그들이 인공지능 로봇에 주입한 뒤 보전하도록 명령한 인간적 속성을 수시로 위반한다. 인간 같은 형상을 한 모방품에게는 참된 인간이 될 것을 명령한 인간이 자신의 욕망을 충족하기 위해 인간성을 포기하는 이율배반의 정황이 발생하는 것이다. 그동안 미래를 재현한 수많은 이야기는 인공지능을 디스토피아를 초래할 범인으로 지목해 왔다. 인간보다 월등한 지능을 가진 존재가 인간을 노예화하여 세계의 주인으로 군림하게 될 것이라는 이러한 서사적 예측은 인공지능을 향한 막연한 불안감을 강화해 왔다.

그런데 〈너도 인간이니?〉는 인공지능 로봇에 대한 막연한 공포를 재현하기보다 그러한 공포 앞에서 있는 인간을 지목한다. ‘너’도 ‘인간’이라는 중의적 제목처럼 인공지능 로봇 남신과 더불어 또 다른 ‘너’에 해당되는 인간에게 실존적 질문을 제기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질문의 끝에서 인공지능이 타락한다면 그것은 원본이자 사용자인 인간의 책임이며, 인공지능이 디스토피아를 초래할 것이 아니라 인간 세계가 이미 디스토피아일 수 있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한다. 또한 〈너도 인간이니?〉

는 인간을 이해하려 노력하고 인간보다 인간을 더 소중하게 생각하는 ‘기계-인간’과 인간을 도구화하며 인간다움을 부정하는 실제 인간 중 누가 더 가치 있다고 말할 수 있는가 하는 딜레마 앞에 서게 한다.¹⁴⁾ 인간들이 남신3를 조롱하고 타락한 욕망의 도구로 이용하려는 순간에도 남신3는 인간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분투하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누구의 삶이 더 인간다운 삶인지를 반복적으로 질문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딜레마는 인공지능 휴머노이드 로봇의 출현을 앞둔 현재 시점에서 반드시 고민해야 할 중요한 문제다. 준거점이자 원본인 인간이 타락한 상태라면 그를 모방하게 될 인공지능 역시 타락의 절차를 밟을 수밖에 없다. 또한 인간 남신이 육체와 의식까지 임의로 조종할 수 있는 수동제어 모드를 통해 남신3를 인간에게 폭력을 가하도록 오용했던 것처럼, 자율성을 확보한 인공지능일지라도 그를 운용하는 것은 결국 인간이다. 사용자인 인간이 악의를 가지고 인공지능을 조정한다면 윤리적인 원칙에 복종하도록 설계된 인공지능이라도 언제든 살인병기가 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인공지능이 인간 세계에 출현한다면 어떻게 살게 될 것인가를 탐색하는 동시에 그러한 존재가 도래하기 전 인간이 과연 그들의 원본으로서 자격이 있는가를 묻는 〈너도 인간이니?〉는 포스트휴먼이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를 명징하게 보여준다. 그것은 바로 남신3에게 오로라 박사가 주입한 첫 번째 원칙인 인간성과 인간 존엄성의 회복이다.¹⁵⁾

14) 〈너도 인간이니?〉에서는 원본인 인간 남신은 안하무인의 저열한 존재로, 모방품인 남신3는 타자와 공존하려 하는 선한 존재로 그려진다. 그로 인해 〈너도 인간이니?〉는 외형은 동일하지만 전혀 다른 행동을 보여주는 인간과 기계를 통해 파괴적인 인간과 따뜻하고 유용한 로봇 중 누가 더 가치 있는 존재인가를 고민하게 만든다. 극 중에서는 “죽도록 흉내 내봐. 당신 같은 인간은 절대 개를 따라갈 수 없으니까(29회)”는 강소봉이나, “로봇보다 못한 인간이라는 소리 듣고 싶어? 정신 차려, 제발(26회)”이라는 지영훈 등의 발언에서처럼 저열한 인간 남신보다 순전한 남신3의 가치가 더 강조된다.

물론 〈너도 인간이니?〉는 인간이 오용하지만 않으면 악해지지 않는 선한 인공지능을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다소 순진한 유토피아적 판타지를 구현한다고도 볼 수 있다.¹⁶⁾ 남신3는 ‘울면 안아주는 게 원칙’이라며 눈물 흘리는 인간을 위로하는 무구한 로봇이며, 가변적이고 불완전한 인간을 기다려 주는 선량한 로봇이다. 심지어 남신3는 수동제어모드를 약용하여 자신을 통해 친할아버지를 죽이려는 인간 남신을 방어하고자 자신의 시스템을 스스로 해킹한 뒤 강제 명령을 막아버리기까지(31회) 한다. 딥러닝을 통해 발전해 나가는 인공지능이 선(善)을 기준으로 의식과 의지를 확장해 간다는 설정은 순진하고 단편적인 생각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순진한 기대가 ‘역사상 최고의 정점에 서서 인간의 특별함에 과도한 자부심을 느끼고 있지만 인간이 가진 지혜와 합리성은 매우 보잘것없다는 사실’¹⁷⁾을 깨닫게 한다. 결과적으로 〈너도 인간이니?〉는 기술공포증에 기반한 디스토피아적 예측보다 선행해야 할 것은 현재의 인간이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권리를 누릴 만한 존재인지를 자문해 보는 일임을 강조한다.

15) 여기서 말하는 인간성이란 인간 본성의 의미라기보다 인격의 의미에 가깝다. 즉 이때의 인간성은 육체와 감정 그리고 의식을 소유한 인간의 생래적 특질을 의미하기보다 자신과 타자를 존엄한 주체로 인정하고 합리적이고 도덕적인 세계를 지향하며 인간의 신체와 정신을 훼손하는 행위를 부정하려는 윤리적 규범성을 보존하는 인간의 고귀한 측면을 지시한다.

16) 〈너도 인간이니?〉의 차영훈 PD는 ‘하지만 AI가 넘어서는 안 될 것이 상식이라고 생각을 했다. 남신은 성장하지만 상식 이상의 행동을 하진 않는다.’라고 말한 바 있다. 이처럼 〈너도 인간이니?〉는 인공지능 로봇인 남신3가 악한 존재로 변질되지 않는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너도 인간이니’는 ‘도깨비’ 같은 작품, 결국 인간 이야기’, 『마이데일리』, 2018.6.11.) 또한 이러한 전제는 과학기술의 방향성을 비판적으로 사유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작품의 한계로 논의될 수 있다.

17) 지그문트 바우만·스타니스와프 오비레크, 『인간의 조건』, 안규남 옮김, 파주, 2016, 58쪽.

3. '욕망하는 기계'와 '횡단하는 주체'의 탄생

포스트휴먼 시대의 주요한 논점 중 하나는 실제 인간과 구별이 불가능한 '기계-인간'이 출현하여 인간과 어울려 살게 된다면 그들을 어떻게 대우해야 하는가이다. 현재까지는 인공지능 휴머노이드 로봇이 인간과 똑같은 형상을 하고 인간처럼 행동한다고 해서 그들을 인간과 유사한 지위에 놓을 수는 없다는 입장이 우세하는 듯하다. 일각에서는 인간과의 동일성 여부와 상관없이 유기체가 아닌 기계이기 때문에 그들을 비주체적 소유물이자 도구로만 간주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그러나 닉 보스트롬과 같은 철학자나 레이 커즈와일 같은 과학자 등은 인공지능에 인간과 동일한 지위를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인간처럼' 혹은 '인간보다'의 지능을 가진 만들어진 존재를 비단 'Thing'으로만 대우할 수는 없으며, 심지어 그들에게 인간과 동등한 지위와 권리를 부여해야 한다고 피력한다.

닉 보스트롬은 사실상 모든 관심 영역에서 인간의 인지능력을 상회하는 초지능을 가진 인공지능의 출현을 '인류가 직면한 가장 중요하고 심각한 문제'로 간주한다.¹⁸⁾ 그는 초지능을 가진 인공지능의 등장으로 제기될 문제와 그 문제를 어떻게 대처해야 할 것인지를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유드코우스키와 함께 인공지능의 지위에 관한 일종의 성명서를 발표한다. 그것은 바로 개체의 발생 양상에 따라 차별을 두어서는 안 된다는 원칙(Principle of Ontogeny Non-Discrimination)이다. 즉 어떤 존재가 인간과 동일한 기능과 의식 그리고 경험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이 어떠한 방식으로 존재하게 되었는가와 상관없이 그들에게 인간과 동일한 윤리적 지위(same moral status)를 부여해야 한다는 것이다.¹⁹⁾

18) 닉 보스트롬, 『슈퍼인텔리전스: 경로, 위험, 전략』, 조성진 옮김, 까치글방, 2017, 53쪽.

레이 커즈와일 또한 이와 유사한 입장을 견지한다. 레이 커즈와일은 기계가 인간 수준의 지능을 갖게 되는 순간이 온다면 그들을 인간과 동등한 존재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기계가 자신의 켈리아(qualia)와 의식적인 경험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게 되어 사람과 구분할 수 없는 수준에 도달한다면 그들을 의식을 가진 사람으로 보아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레이 커즈와일은 인공지능을 인간과 동일한 존재로 인정해서는 안 된다는 사람조차도 막상 인간과 다를 바 없어 보이는 인공지능과 조우하게 된다면 대부분이 그들에게 연민을 느낄 것이라고 주장한다.²⁰⁾ 이처럼 인공지능이 인간 수준의 의식을 가지고 있다면 비유기체라 할지라도 그들을 행위와 사고의 주체로 간주해야 한다는 입장에서는 포스트휴먼 시대에 걸맞은 새로운 인간관을 정립해야 함을 촉구한다.

이러한 가운데 <너도 인간이니?>는 인간과 동일한 형상을 하고 있으며 인간과 같은 의식 수준을 가진 '기계-인간'을 어떻게 대우해야 하는가에 관한 답변을 극 중 인물을 통해 찾아가도록 한다. 인공지능 휴머노이드 로봇인 남신3와 인물들은 다양한 사건을 겪으며 각각 '실제-인간'과 '기계-인간'에 관한 지식과 관점을 확장해 나간다. 남신3는 실제의 경험과 관계를 통해 인간에 관한 정보를 확장해 나간다.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 인간의 속성을 심도 있게 학습하게 된다. 그 결과 남신3는 인간을 모방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자신의 정체성에 관해 사유하며 자기 삶의 주인으로 서고자 하는 욕망까지 가지게 된다. 이렇게 인간이 아니라고 할 수 없을 만큼 인간을 닮아가는 남신3를 지켜보던 극 중 인물들 역시 '기계-인간'에 관한 막연한 의심과 공포를 철회하게 된다. 그들은 남신3

19) Nick Bostrom · Eliezer Yudkowsky, "The Ethics of Artificial Intelligence", 2011, 8쪽 (<https://nickbostrom.com/ethics/artificial-intelligence.pdf>) 참고.

20) 레이 커즈와일, 『마음의 탄생』(ebook), 9장: 마음을 지닌 기계의 탄생, 윤영삼 옮김, 크레센도, 2016 참고.

와 친구, 가족, 연인으로 관계 맺으며 남신3를 ‘인간과 같이’ 대우하는 새로운 주체성을 갖게 된다

인공지능 로봇인 남신3는 마치 아이가 어른으로 성장하듯 처음에 주어진 설정값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 딥러닝을 통해 끊임없이 발전하여 인간에 더욱 근접해 간다. 식물인간이 된 인간 남신을 대리하기 위해 본격적으로 인간 세계에 진입하게 된 남신3는 처음에는 생각보다 복잡하고 비논리적인 인간 세계에 혼란을 느낀다. 예를 들어 ‘조만간’ 같은 인간의 언어가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 인간은 왜 거짓말을 하는지, 울고 있는 인간을 언제는 위로해 주고 언제는 내버려 두어야 하는지 등 원칙대로 수행해야 하는 인공지능 로봇 남신3는 수시로 혼란에 빠진다. 그러나 뛰어난 인지능력과 인간 행동 모방 능력을 가지고 있는 남신3는 시뮬레이션²¹⁾과 다양한 실제적 경험을 통해 인간과 인간 세계에 대한 이해를 신속하게 확장해 나간다.

남신3: 이제 지영훈 씨와 인간 남신의 관계가 뭔지 알아요.

영훈: (보면)

남신3: 나, 강소봉 씨랑 친구 하기로 했거든요.

그리고 나니까 지영훈 씨가 완전히 이해됐어요.

지영훈 씨한테 인간 남신은 친구구나. 언제나 옆에 있어

주는 친구. 친구니까 강소봉 씨가 날 지켜주고 싶은 것처럼

지영훈 씨도 인간 남신을 지켜주고 싶은 거구나. 맞죠?

21) 인간 남신은 어릴 때 헤어진 어머니를 찾아 체코에 방문했다가 그의 자리와 목숨을 노리는 서종길에 의해 교통사고를 당하여 식물인간이 된다. 이에 인간 남신의 어머니이자 남신3의 창조자인 오로라와 인간 남신의 조력자인 지영훈은 인공지능 로봇 남신3에게 인간 남신을 연기하게 시킨다. 그 후 오로라와 지영훈은 시뮬레이션을 통해 남신3가 인간 남신의 특성을 학습하도록 한다. 그 결과 남신3는 안하무인 인간 남신의 성격과 행동, 말투와 습성 그리고 가치관까지 그대로 모방하는 놀라운 결과를 보여준다.

영혼: …비슷해요.

남신3: (농담) 혹시 나랑 친구해줄 마음은 없어요?

나도 인간 남신이랑 똑같이 생겼잖아요.

<너도 인간이니?> 21회 S#17 中

남신3(N): 내가 로봇이 아니면 어땠을까.

너랑 헤어지면 슬퍼하고, 너랑 있으면 즐거워하고,

너 때문에 가슴 아파하고, 널 위해 울어줄 수 있다면.

하지만 난 로봇이야.

<너도 인간이니?> 25회 S# 1-7 中

딥러닝을 통해 인간을 학습해 가던 남신3는 슬픔이나 절망, 기쁨과 성취감 등의 감정뿐만 아니라 우정·모성·믿음·사랑과 같은 관념까지도 학습해 나간다. 심지어 남신3는 인간만의 특권으로서 ‘인간을 다른 종들과 구분되게 만드는 상상의 세계²²⁾에까지 진입하는데, 그는 인간처럼 울고 싶다는 생각을 하며 자신이 눈물을 흘리는 장면을 상상하기도(25회) 한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통해 남신3는 자신이 인간들에게 어떠한 로봇이 되어야 하는지를 생각하기보다 자신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고민하는 주체의 탄생을 경험한다. 이러한 주체로의 탄생은 그와 동료, 친구 그리고 연인으로 관계를 심화해 나가는 강소봉을 통해 촉발된다. 강소봉은 스스로 결정하고 판단하는 것의 당위성을 일깨우며 남신3가 인간에게 복종하는 로봇이라는 수동적 지위에서 탈주하도록 이

22) 로빈 던바는 상상력을 인간만의 고유한 특성으로 본다. 그는 현실 세계에서 한걸음 물러나 ‘내가 겪은 것과 다른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었을까’라고 물어볼 수 있는 상상력이야말로 인간을 다른 종과 구분하게 하고 인간을 인간답게 하는 결정적 기준이라고 말한다.(찰스 파스테르나크 편저, 『무엇이 우리를 인간이게 하는가』, 채은진 옮김, 말글빛냄, 2008, 104쪽 참고.)

끈다. “나를 나로 인정해 주는 유일한 사람(17회)”인 강소봉으로 인해 정체성의 균열을 경험한 남신3는 인간의 명령에 무조건 순종하기보다 합리적인 추론에 기반한 주체적인 판단을 내리기 시작한다.

남신: (차갑게) 니가 내 대신 만들어졌다는 거 까먹었어?

넌 내가 하라는 대로만 하면 돼.

니 영역이니 니 사람이니 같잖은 소리 집어치우고

중략

남신3: 내가 왜 꼭 그래야 되죠?

남신: ...뭐?

남신3: 뭘 오해한 거 같은데,

내가 당신을 도와주는 거지 당신이 날 부리는 게 아니에요.

나한테 부탁할 수는 있지만 명령할 자격은 없어요.

뭔가를 원한다면 정중히 부탁해요. 헐박하지 말고.

<너도 인간이니?> 26회 S#58-60 中

이렇게 인간화되어가는 그리고 인간의 권한까지 욕망하는 인공지능 로봇 남신3를 지켜보면서 <너도 인간이니?>에 등장하는 인간들 역시 ‘기계-인간’에 관한 관점을 변환해 나간다. 그중에서도 지영훈과 강소봉은 남신3를 자발적 의지와 욕망을 가진 주체적인 존재로 인정하는 단계까지 나아가면서 포스트휴먼 시대 속 실제 인간을 향한 새로운 주체성을 제안한다. 그것은 ‘인간의 경계가 계속해서 구성되고 재구성된다는 사실을 인정하며’²³⁾ ‘인간-아닌 관계들이 관계망에 완전히 잠겨 있고 내재화되어 있는 횡단적 존재’²⁴⁾로서의 주체성이다. 남신3와 계약관계로 만나

23) 캐서린 헤일스, 『우리는 어떻게 포스트휴먼이 되었는가』, 허진 옮김, 열린책들, 2013, 25쪽 참고.

24) 로지 브라이도티, 『포스트휴먼』, 이경란 옮김, 아카넷, 2017, 246쪽.

게 된 지영훈과 강소봉은 처음에는 남신3를 일종의 도구로 간주하며 비인간을 향한 경계심과 불쾌감을 드러낸다. 그러나 남신3가 보여준 인간보다 인간다운 모습 특히 타인을 신뢰하고 보호하려는 순전한 모습에서 비인간을 향한 혐오적 타자화를 중단한다. 그리고 지영훈은 남신3를 연대와 우정에 근간한 친구로, 강소봉은 남신3를 친구뿐만 아니라 연인으로까지 간주하며 관계를 발전시켜 나간다.

인간/휴먼을 역사적 구성물이라고 보는 로지 브라이도티는 인간만이 지구의 주인이라는 오만한 생각으로 ‘인간-아닌’ 것들에 위계를 부여해 온 인류 역사를 비판한다. 그리고 인간을 특권화하는 위계적 관계에서 벗어나는 탈-인간중심적 선화를 이루어, 인간 스스로 자신의 위치를 근본적으로 재설정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로지 브라이도티는 탈-인간중심적 선화를 위해 다양한 생물뿐만 아니라 기계에 관한 관점도 변혁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기계들은 자신만의 시간성과 잠재성 그리고 미래성을 가지고 있다. 또한 이미 우리 시대는 기술적 타자와 전례 없는 친밀성을 누리고 있으며 그로 인해 유기체와 비유기체 그리고 태어난 것과 제조된 것들 간의 분할선을 재조정하라는 요청을 받고 있다.²⁵⁾ 따라서 앞으로의 인간은 공유된 세계와 영토적 공간에 대한 애착과 연계 의식을 재정의하고, 인간에게 하나의 공통 기준이 있다는 개념을 배제하는 포스트휴먼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너도 인간이니?〉에서 강소봉은 이러한 횡단적 존재로서의 포스트휴먼리즘적 주체를 실현하는 인물이다. 그는 인공지능 로봇인 남신3와 사랑을 나누는 연인 관계로까지 발전하며, ‘실제-인간’과 ‘기계-인간’의 완고한 경계선을 파기하는 도발성을 보인다. 강소봉은 남신3를 물건으로 대하거나 그를 약용하려는 사람에게 ‘인간인 게 뭐 그리 대단하냐(15회)’

25) 로지 브라이도티, 『포스트휴먼』, 이경란 옮김, 아카넷, 2017, 117-118쪽 참고.

고 경고하며, 남신3가 ‘그냥 물건이 아니라 머리로 있고 인간의 감정도 이해하는(14회)’ 존재라는 것을 지속적으로 피력한다. 남신3의 첫 번째 친구가 된 소봉은 남신3가 인간 세계를 안전하게 횡단할 수 있도록 도와 준다. 무엇보다 소봉은 남신3가 인간들의 말에만 복종하지 않고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주체적인 존재로 성장하는 데 결정적 기여를 한다. 탐욕스러운 인간들 속에서 남신3가 선한 의지를 가진 로봇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것 역시 강소봉이다.

소봉: 넌 앞으로 내 강통도, 꼬봉도 아냐.

내 꼬봉뿐 아니라 누구의 꼬봉도 아니니까

누구 말도 듣지 말고 니 판단대로 행동하고 결정해.

남신3: 내 판단대로 하면 안 되는데, 난 인간 남신을 흉내 내야 되잖아
아요

소봉: 남신은 남신이고 너는 너야 넌 그냥 너라귀

남신3: ...강소봉 씨.

<너도 인간이니?> 16회 S#61 中

소봉: 난 너랑 친한 게 좋아. 난 내가 널 좋아하는 게 진짜 좋아.

그러니까 혼자 감당할 생각 마. 나한테 혼나.

남신3: (웃고) 나 사실 또 밝힐 게 있어. 너한테만.

소봉: 나한테만? 뭐데? 로봇보다 더 엄청나?

남신3: 만일 내가 인간 남신이나 서 이사 옆에 계속 있었다면.

원칙도 버리고 사람을 해치는 로봇이 됐을 거야.

내가 내 모습을 지킬 수 있었던 건 다 니 덕분이야.

너랑 같이 있어서 지금의 내가 될 수 있었어.

다행이야. 내가 너의 로봇인 게. 난 너의 로봇이야. 강소봉.

<너도 인간이니?> 33회 S#17 中

이처럼 인공지능 로봇인 남신3를 하나의 주체로 인정하고 그와 로맨스를 나누는 데까지 나아가는 강소봉은 포스트휴먼 시대의 인간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제시한다. 하나는 '기계-인간'과 공존하고 연대하는 세계를 구성하려면 인간이 먼저 인간다움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다. 수동 제어모드가 장착된 남신3는 인간에 의해 언제든지 오용될 수 있다. 또한 윤리적인 로봇으로 설계되었다 할지라도 딥러닝과 행동 모방 능력이 뛰어난 남신3가 비인간적인 인간들에게 끊임없이 노출된다면 중국에는 그들의 행위를 모방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기계-인간'이 인간 세계를 디스토피아로 만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모방 대상로서의 책임감을 가지고 진실한 인간으로 자신을 변화해 나간 강소봉의 실천 의지가 필요하다. 다른 하나는 인간의 형상을 하고 인간의 마음까지 학습하는 '기계-인간'이 출현한다면 그들을 기계로만 치부할 수는 없으며, 그들에게 인간과 유사하거나 동등한 지위를 부여해야 한다는 것이다. 즉 강소봉은 인간에 관한 '존재론적 범주나 구조적 차이의 분할선'²⁶⁾을 재조정하는 포스트휴먼적 주체성을 통해 '기계-인간'을 대하는 것이 인간의 새로운 책무라는 것을 보여준다.

〈너도 인간이니?〉가 '기계-인간'을 독립적 주체로 인정하는 포스트휴먼의 주체성을 지지한다는 점은 결론에 이르러 더욱 명료하게 드러난다. 〈너도 인간이니?〉의 인공지능 휴머노이드 로봇 남신3는 실제 인간인 남신이 의식불명 상태에 빠지자 그를 연기하기 위해 한국에 보내졌다. 무엇보다 남신3는 탄생부터가 인간 남신을 대리하기 위함이라는 목적성을 갖는다. 그러나 〈너도 인간이니?〉는 기계이자 대리물이며 모방품인 남신3의 역할과 지위를 실제 인간에게 내어주는 것으로 이야기를 마무리하지 않는다. 즉 결론에 이르러 로맨스의 주인공을 실제 인간인 남신으

26) 로지 브라이도티, 『포스트휴먼』, 이경란 옮김, 아카넷, 2017, 118쪽.

로 대체하기 위해 남신3를 인간 세계에서 퇴출하지 않으며, 마지막까지 남신3에게 주인공의 자리를 보존하게 한다. 이처럼 〈너도 인간이니?〉는 인간과 인공지능 로봇이 사랑하는 관계가 된다는 파격적인 설정을 피해 가지 않는다. 또한 사고를 당해 로봇으로의 능력이 많이 사라진 상태가 된 남신3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는 소봉을 통해 ‘기계-인간’에게까지 확장된 ‘절대적 환대’²⁷⁾를 보여준다.

4. 나가기

포스트휴먼 시대가 인간의 근원적 결핍과 욕망을 해결해 주고 인간보다 강하고 지적인 존재가 세계의 다양한 문제를 해결해줄 수 있을 것이라는 낙관적 견해도 있지만, 그 반대의 입장도 거세다. 대표적으로 마이클 샌델은 인간을 인위적으로 재조정하려는 과학기술의 욕망은 인간의 능력과 성취가 선물로 주어진 삶의 일부임을 인정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비판한다. 자연적으로 주어진 인간의 조건을 과학기술을 통해 개조하려는 것 자체가 나치즘적 기획이라는 것이다.²⁸⁾ 그러나 전술한 바와 같이 현재로서는 포스트휴먼 시대를 중단하게 할 명분이 없어 보인다. 따라서 이제는 포스트휴먼과 포스트휴먼 시대의 도래를 인정하고 새로운 시대에 적합한 정체성과 가치관이 무엇인가를 파악해야 한다. 또한 이를 확립하기 위해 무엇을 수행해야 하는가를 실제적으로 고민해야 한다.

이러한 점에서 인공지능 휴머노이드 로봇을 주인공으로 등장시켜 포스트휴먼이 인간 사회에 출현한다면 어떠한 상황이 발생할 것인지를 보

27) 자크 데리다, 『환대에 대하여』, 남수민 옮김, 동문선, 2004, 70-71쪽 참고.

28) 마이클 샌델, 『완벽에 대한 반론: 생명공학 시대, 인간의 욕망과 생명윤리』, 이수경 옮김, 미래엔, 2016, 107쪽 참고.

여준 〈너도 인간이니?〉는 적절한 시의성을 확보한다고 볼 수 있다. 인공지능 휴머노이드 로봇이 대한민국에 최초로 출현했다는 가정에서 시작하는 〈너도 인간이니?〉는 구체적인 사건을 통해 앞으로 인공지능 로봇이 등장한다면 인간은 그들을 어떠한 존재로 대해야 하는지를 고민한다. 그리고 그 고민을 통해 포스트휴먼 시대에 적합한 인간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탐색해 나간다. 또한 ‘기계-인간과 관계하는 다양한 인물들을 통해 인간적이라고 하는 것의 실체와 모순됨을 고발하기도 한다. 이러한 〈너도 인간이니?〉는 가장된 이야기를 통해 미래를 체험하고 준비하게 하는 일종의 시뮬레이터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너도 인간이니?〉가 보여주는 포스트휴먼적 상상력은 인공지능 휴머노이드 로봇인 남신3와 그와 관계를 맺는 인간을 통해 구체화된다. 천재 로봇 공학자 오로라 박사가 아들에 대한 그리움을 해소하기 위해 창조한 ‘기계-인간’인 남신3는 육안으로 구별이 불가능할 정도로 인간과 동일한 외형을 가지고 있으며 인간처럼 사고하고 행동한다. 그뿐만 아니라 인간보다 뛰어난 육체적·지적 능력을 갖춘 남신3에게는 인간 세상의 규율을 지키고 위협에 처한 인간을 도우며 어떠한 경우여라도 인간을 해치지 않는다는 원칙이 입력되어 있다. 즉 남신3는 단순히 인간을 모방하는 존재가 아니라 인간을 돕고 인간의 규율에 순응하여 인간과 세계의 안위를 보존하는 데 기여하는 윤리적 인공지능 로봇으로 창조되었다. 그 결과 남신3는 인간처럼 살기 위해 노력하고 인간 세계의 원칙을 엄수하려는 정의로운 로봇으로 살아간다.

그러나 〈너도 인간이니?〉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감정과 욕망에 휘둘리는 불완전한 존재로 원칙을 지키고 인간을 도우며 정의를 수호하고자 하는 ‘기계-인간과 대조적으로 그려진다. 이렇듯 〈너도 인간이니?〉는 인간다움의 속성을 보존하며 진짜 인간이 되기 위해 노력하는 인공지능

로봇과 인간다움의 속성을 부인하며 타락해 버린 인간들을 대조적으로 재현함으로써 '인간다움'에 관한 질문을 던진다. '너'도 '인간'이니라는 중의적 제목처럼 인공지능 로봇 남신과 더불어 또 다른 '너'에 해당되는 인간에게 실존적 질문을 제기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인공지능이 타락한다면 그것은 원본이자 사용자인 인간의 책임이며, 인공지능이 디스토피아를 초래할 것이 아니라 인간 세계가 이미 디스토피아일 수 있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한다.

이러한 점에서 인공지능이 인간 세계에 출현한다면 어떻게 살게 될 것인가를 탐색하는 동시에 그러한 존재가 도래하기 전 인간이 과연 그들의 원본으로서 자격이 있는가를 묻는 <너도 인간이니?>는 포스트휴먼이 가장 먼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를 명징하게 보여준다. 그것은 바로 남신³에게 오로라 박사가 주입한 첫 번째 원칙에서 드러나듯 인간성과 인간 존엄성의 회복이다. 결과적으로 <너도 인간이니?>는 기술공포증에 기반한 디스토피아적 예측보다 선행해야 할 것은 현재의 인간이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권리를 누릴 만한 존재인지를 자문해 보는 일임을 강조한다. 또한 인간보다 월등한 지능을 가진 존재가 인간을 노예화하여 세계의 주인으로 군림하게 될 것이라는 막연한 공포가 실현되지 않으려면 인간이 인간성을 되찾아야 한다는 사실을 권고한다.

더불어 <너도 인간이니?>는 남신³를 통해 인간처럼 행동하고 사유하는 인공지능 휴머노이드 로봇이 등장한다면 그들을 어떻게 대우해야 하는지에 관한 일련의 답변을 제시한다. 포스트휴먼 시대의 주요한 논점 중 하나는 실제 인간과 구별이 불가능한 '기계-인간'이 출현하여 인간과 어울려 살게 된다면 그들을 어떻게 대우해야 하는가이다. 인공지능 로봇인 남신³는 마치 아이가 어른으로 성장하듯 주어진 설정값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 딥러닝을 통해 끊임없이 발전하여 인간에 더욱 근접해 간

다. 남신3는 슬픔이나 절망, 기쁨과 성취감 등의 감정뿐만 아니라 우정·모성·믿음·사랑과 같은 관념까지도 학습해 나간다. 중국에는 인간들에게 어떠한 로봇이 되어야 하는지를 생각하기보다 자신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고민하는 주체의 탄생을 경험한다.

인공지능 로봇에게 주체적 탄생을 경험케 한 〈너도 인간이니?〉는 ‘기계-인간’과 연대하고 공존하는 새로운 인간형을 함께 출현시킨다. 그중 지영훈과 강소봉은 남신3를 자발적 의지와 욕망을 가진 주체적 존재로 인정하는 단계까지 나아가면서 포스트휴먼 시대 속 실제 인간을 향한 새로운 주체성을 제안한다. 특히 남신3를 하나의 주체로 인정하고 그와 로맨스를 나누는 데까지 나아가는 강소봉은 포스트휴먼 시대의 인간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제시한다. 하나는 ‘기계-인간’과 공존하고 연대하는 세계를 구성하려면 인간이 먼저 인간다움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인간의 형상을 하고 인간의 마음까지 학습하는 ‘기계-인간’이 출현한다면 그들을 기계로만 치부할 수는 없으며, 그들에게 인간과 유사하거나 동등한 지위를 부여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렇듯 ‘기계-인간’과의 진실된 사랑을 나누는 횡단적 존재를 통해 〈너도 인간이니?〉는 인간과 비인간, 유기체와 제조된 존재 사이의 경계를 허물고 새로운 타자와의 연대를 권유하는 포스트휴머니즘적 주체를 보여준다.

세계 3대 미래학자인 리처드 왓슨은 우리가 누구이며 우리가 현존하는 다른 유형의 지능과 어떻게 구별되는지에 관한 질문에 답을 제공하는 이야기가 필요하다고 말한다. 그러한 이야기를 토대로 어떠한 합의된 규제를 만들고 그러한 규제 안에서 마련된 기술을 인간의 삶에 적용해야 하기 때문이다.²⁹⁾ 따라서 포스트휴먼 시대가 심화되기 전에 그에

29) 리처드 왓슨, 『인공지능 시대가 두려운 사람들에게』, 방진이 옮김, 원더박스. 2017, 328쪽.

관한 다양한 이야기가 생산되어야 하며, 그러한 이야기를 통해 포스트 휴먼 시대의 방향성을 고민해야만 한다. 무엇보다 현재의 인간은 급변할 세계에 탄생할 미래의 인간과 어떻게 공존할 것인지를 준비해야 한다. 이러한 정황에서 〈너도 인간이니?〉가 던지는 인간과 ‘기계-인간’에 관한 질문과 그에 관한 답변은 포스트휴먼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유의미한 사유를 제공한다고 볼 수 있다.

참고문헌

1. 기본자료

- 조정주, 『너도 인간이니? 1』, 알에이치코리아, 2018.
_____, 『너도 인간이니? 2』, 알에이치코리아, 2018.

2. 논문과 단행본

- 닉 보스트롬, 『슈퍼인텔리전스-경로, 위험, 전략』, 조성진 옮김, 까치글방, 2017.
도미니크 바벵, 『포스트휴먼과의 만남』, 양영란 옮김, 궁리, 2007.
라파엘 카푸로·미카엘 나젠보르그, 『로봇윤리-로봇의 윤리적 문제들』, 변순용·송선영 옮김, 어문학사, 2013.
레이 커즈와일, 『특이점이 온다』, 김명남·장시형 옮김, 김영사, 2007.
_____, 『마음의 탄생』, 윤영삼 옮김, 크레센도, 2016.
로지 브라이도티, 『포스트휴먼』, 이경란 옮김, 아카넷, 2017.
루이스 멀퍼드, 『기계의 신화 I』, 유명기 옮김, 아카넷, 2013.
리처드 왓슨, 『인공지능 시대가 두려운 사람들에게』, 방진이 옮김, 원더박스, 2017.
마이클 샌델, 『완벽에 대한 반론-생명공학 시대, 인간의 욕망과 생명윤리』, 이수경 옮김, 미래엔.
스튜어트 리셀·피터 노빅, 『인공지능-현대적 접근방식』, 류광 옮김, 제이펍, 2016.
유발 하라리, 『사피엔스』, 조현욱 옮김, 김영사, 2016.
자크 데리다, 『환대에 대하여』, 남수민 옮김, 동문선, 2004.
지그문트 바우만·스타니스와프 오비레크, 『인간의 조건』, 안규남 옮김, 파주, 2016.
찰스 파스테르나크 편저, 『무엇이 우리를 인간이게 하는가』, 채은진 옮김, 말글빛냄, 2008.
캐서린 헤일스, 『우리는 어떻게 포스트휴먼이 되었는가』, 허진 옮김, 열린책들, 2013.

Abstract

TV Dramas in the Post-Human Era — Focusing on “Are You Human?”

Lee, Da-Un(Chungnam National University)

‘Post-human’ involves human beings beyond the human, collectively referring to those who are conditioned to live a completely unconventional life in comparison with human beings both in the past and present, due to the advancement of science and technology. A post-human era, when Heidegger’s proposition of being-towards-death would sound unsubstantiated, heralds an epoch-making transformation that could substantially obliterate the thinking and identity accumulated by Homo sapiens. In the same vein, Korean society has witnessed a gain of attention to AI and Industry 4.0 since the ‘AlphaGo Shock’, while television dramas are unfolding fully-fledged post-human imagination.

Particularly, “Are You Human?” presents the episodes of an imaginary AI humanoid robot situated in a Korean society based on post-humanist imagination. “Are You Human?” raises a question about humanity by re-enacting the depravity of humans who deny their humanity in juxtaposition with an AI robot that tries to be a real human by preserving the qualities of humanity. Also, the drama explores how to treat and coexist with a ‘machine-human’ that has acquired desires and a spontaneous will.

“Are You Human?” explores a view that we should not treat an android in human form that has acquired human ways of thinking as nothing but a piece of machine. Rather it suggests that we must allow it a status similar or equal to that of a human. Moreover, the drama depicts a post-humanist agent, who breaks down the adamant normative boundary separating humans and organisms from non-humans and fabricated items by the portrayal of a human having true love for a ‘machine-human’. In conclusion, “Are You Human?” indicates a method of thought for a post-human era by suggesting a cross-sectional subjectivity nullifying the solid idea that only humans can be the subject.

290 대중서사연구 제24권 4호

(Keywords: Post-human, Post-humanism, AI, Robot, SF, Humanity, Subjectivity)

논문투고일 : 2018년 10월 9일

논문심사일 : 2018년 11월 5일

수정완료일 : 2018년 11월 10일

게재확정일 : 2018년 11월 13일